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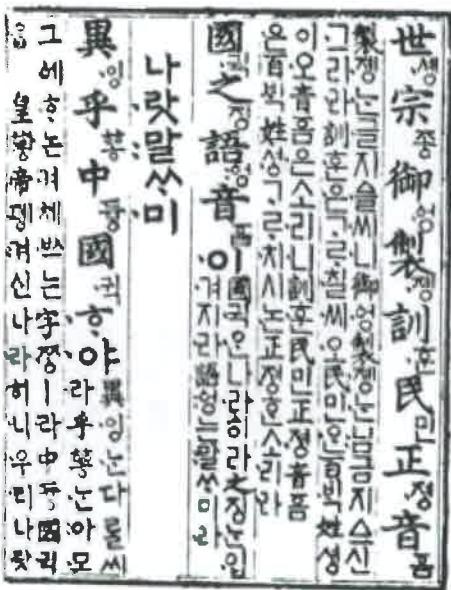
1. 훈민정음 개관

1.1. 명칭의 의미 : 백성을(民) 가르치는(訓) 바른(正) 소리(音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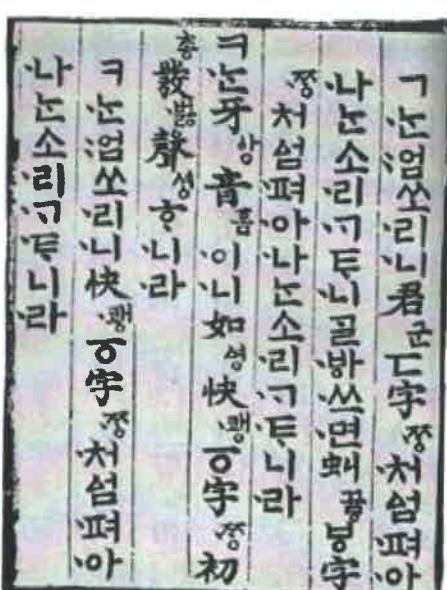
- 글자 이름 : 1443년(세종 25년) 창제
- 책 이름 : 1446년(세종 28년) 반포
- ※ 국보 제70호(1962년 12월 20일 지정, 간송미술관 소장)

1.2. 『訓民正音』의 체제

- 예의(例義) : 어지(御旨), 훈민정음의 음가 및 운용법을 설명함.
- 해례(解例) : 5해 1례로 구성됨
 - 제자해(制字解) : 훈민정음 제자의 원리, 자음과 모음의 체계, 음상(音相)을 설명함.
 - 초성해(初聲解) : 한자를 이용하여 자음의 발음과 운용 원리 설명.
 - 중성해(中聲解) : 한자를 이용하여 모음의 발음과 운용 원리 설명.
 - 종성해(終聲解) : 한자를 이용하여 받침의 발음과 사성에 대해 설명.
 - 합자해(合字解) : 초성, 중성, 종성 합자의 예를 제시하고 성조에 대해 설명.
 - 용자례(用字例) : 한자를 예로 들어 단어의 사용례를 보여 줌.
- 정인지서(鄭麟趾序) : 훈민정음의 제작 경위(창제 원리와 독창성, 창제자, 책의 편찬자를 기록).



<그림 1> 훈민정음(언해)



<그림 2> 초성의 음가

1.3. 훈민정음의 창제 정신과 동기

- 어지(御旨; 임금의 말씀) : 자주(?) · 애민 · 실용 정신

世·성宗·종 御·영製·정 調·한民·민正·정 音·음

나·랏:말 쓰·미 中·동國·국·에 달·아, 文·문字·자·와·로 서로 수·모·디 아·니 흐·씨, ·이·런 전·주·로 어·린 百·백姓·성·이 너·르·고·져 ·을 배 이·서·도, 모·음·내 제·트·들 시·리·며·디 :을 흐·노·미 하·니·라, ·내·이·운 爲·왕·호·야·어엿·비 너·겨, ·새·로 ·스·물 여·들 字·자·웅·불 맹·고 노·니, :사통·마·다 :회·여 :수·비 니·겨 ·날·로 ·뿌·에 便·안한·한의 흐·고·져 흐 쌩·미니·라.
기·는 :엄쏘·리·니, 君·군刀·자·정·처·엄·퍼·아 ·나는 소·리 ·고·토·니, 굳·바·쓰·면 脣·방字·자·정·처·엄·퍼·아 ·나는 소·리 ·고·토·니·라.

<그림 3> 훈민정음 언해 (어지)

- ① 나라의 말소리가 중국과 달라 한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
- ② 이런 까닭에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자신의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. 내가 이것을 불쌍히 여겨 새로 스물여덟 자를 만드니
- ③ 사람들이 쉽게 익혀서 날마다 쓰는 데에 편안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.

- 해석

- ①은 자주 정신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으나 지나친 견강부회(牽強附會)이다.
⇒ 한·중 양국 언어의 본질적 차이를 인식한 것. 이것이 신문자 창제의 동기가 됨.
- ② 일반 백성들의 정상적 문자 생활 도모.
- ③ ②를 위하여 배우기 쉬운 실용적인 문자를 만듦.
- 훈민정음 창제의 동기 : 당시의 한자음을 바로잡기 위한 것.
 - 『동국정운(東國正韻)』을 편찬하기 위한 발음 기호의 필요성 대두.
 - 한글이 표음 문자로 창제되어야 하는 필연적인 이유이기도 함.

2.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

2.1. 기본 원리

- 음절을 초성, 중성, 종성으로 구분
- 초성과 중성을 구별하여 각각 다른 원리로 문자를 만듦.
- 종성은 초성과 성질이 같기 때문에 별도로 글자를 만들지 않고 초성을 다시 씀.

2.2. 초성의 제자 원리

- 원리 : 발음 기관의 상형과 가획(加劃), 이체(異體)
- 방법 : 기본자를 만들고 이를 응용하여 다른 글자 제작.
 - 발음 기관을 상형하여 기본자를 만듦.
 - 기본자에 획을 더하여 가획자를 만듦.
 - 기본자와 모양을 달리하여 이체자를 만듦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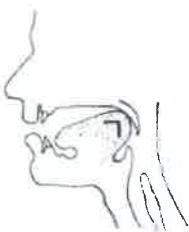
- 초성자의 체계

| 오음(五音) | 기본자 | 가획자 | 이체자 |
|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|
| 아음(牙音) / 어금니쏘리 | ㄱ | ㅋ | ㆁ |
| 설음(舌音) / 혀쏘리 | ㄴ | ㄷ ㅌ | (ㄹ) |
| 순음(脣音) / 입시울쏘리 | ㅁ | ㅂ ㅍ | |
| 치음(齒音) / 니쏘리 | ㅅ | ㅈ ㅊ | (△) |
| 후음(喉音) / 목소리 | ㅇ | ㅎ | |

<표 1> 초성의 제자 원리

- 각 초성자의 제자 원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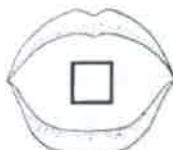
- 아음(牙音) : 혀뿌리(舌根)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.
- 설음(舌音) : 혀 끝(舌端)이 윗니에 닿는 모양.
- 순음(脣音) : 아랫입술이 윗입술에 닿는 모양(한자의 ㅁ)
- 치음(齒音) : 아랫니의 모양
- 후음(喉音) : 목구멍의 둥근 모양
- 전탁자(全濁字) : ㄲ, ㄸ, ㅃ, ㅉ, ㅎ - 기본자를 반복해서 씀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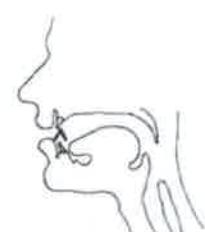
<그림 4> 아음의 발음



<그림 5> 설음의 발음



<그림 6> 순음의 발음



<그림 7> 치음의 발음

2.3. 중성의 제자 원리

- 원리 : 천(天) · 지(地) · 인(人) [삼재(三才)]의 상형, 초출(初出)과 재출(再出)
- 방법 : 기본자를 만들고, 이들을 어울리게 하여 초출자와 재출자를 만듦.

| 구분 | 기본자 | 초출자 | 재출자 |
|-------|-----|-----|-----|
| 양성 모음 | · | ㅗ ㅏ | ㅕ ㅑ |
| 음성 모음 | — | ㅜ ㅓ | ㅠ ㅓ |
| 중성 모음 | | | |

<표 2> 중성의 제자 원리

① 기본자 : 상형(象形)

- : 하늘이 둥근 모양(天圓)
- : 땅이 평평한 모양(地平)
- | : 사람이 서 있는 모양(人立)

② 초출자(初出字) : 하늘과 땅(ㅗ, ㅜ), 하늘과 사람(ㅏ, ㅓ)을 각각 한 번씩 결합.

③ 재출자(再出字) : 초출자에 다시 '·'를 결합하여 글자를 만듦.

3. 훈민정음의 발음 교육 활용 가능성

3.1. 조음 음성학적 지식을 활용한 발음 교육

- 시각 자료를 이용할 수 있음 ⇒ 학습자의 흥미 유발.
- 한국어는 다른 언어와는 달리 발음 교육에 매우 좋은 조건을 갖춤.
 - 문자가 발음을 표상하고 있음. ⇒ 자모 교육과 함께 초기의 발음 교육을 병행할 수 있음.
 - ⇒ 훈민정음이 매우 정밀한 조음 음성학적 관찰을 통해 제자(制字)되었기 때문.

• 알파벳도 마찬가지로 발음을 표상한 것이기는 하나, 한국어의 자모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음
• 알파벳이 하나의 상징 기호에 불과하지만, 한글은 상징 기호인 동시에 발음의 특성까지도 보여준다는 점이 특이함.

4. 한국어의 자모 교육과 발음 교육

4.1. 일반적 자모 교육

- 한국어 교육의 시작은 자모 교육부터 이루어짐.
- 자모 교육의 순서는 사전의 배열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.
 - 자음 : 'ㄱ'부터 'ㅎ'까지 자모를 익히고, 겹자음을 익힘.
 - 모음 : 'ㅏ, ㅑ, ㅓ, ㅕ……'의 순서를 따름.
- 이는 무조건적 암기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음.

4.2.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에 따른 자모 교육

- 자음자와 자음의 발음 교육

- 순서

- ① 순음-설음-치음-아음-후음

- ⇒ 발음이 되는 조음 기관을 그 배치 순서대로 따라가는 것이 기억에 편리함.

- ⇒ 인간이 가장 먼저, 그리고 가장 쉽게 발음할 수 있는 음은 순음(脣音)임.

- ② 기본자-가획자-병서자-이체자

- ⇒ 글자의 형태와 함께 발음 교육 병행.

- ⇒ 글자 형태의 동일성과 차별성을 부각하여 교육.

- ← 이들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음 위치에서 조음 방법상의 차이로 음가가 구별됨.

- ③ 받침 : 7종성

- 구체적 방법

- ① 조음 위치 설명하기 : 발음 기관의 해부도 이용

- ② 기본자 설명하기 : 조음 위치에 따라 상형의 원리에 의해 제자된 기본자 설명.

- ③ 파생 글자 설명하기 : 기본자가 유지된 상태에서 조음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음가 구별.

- ⇒ 휴지(休紙) 활용 연습 : 발음의 차이는 곧 기식성의 유무, 긴장성의 유무에 따라 나타남.

- ㄱ : 가 - 휴지가 약간 흔들린다.

- ㅋ : 카 - 휴지가 심하게 흔들린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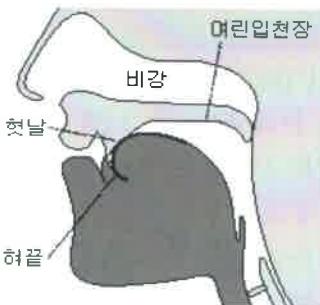
- ㄲ : 까 - 휴지가 거의 흔들리지 않는다.

- ㆁ : 응 - 휴지가 거의 흔들리지 않는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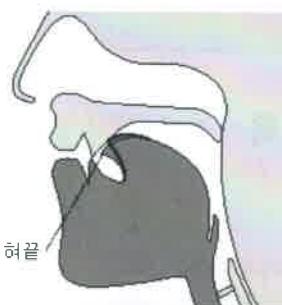
- 유기음 : 기식성이 있어 성문 아래에서 응축된 날숨이 일시에 터지면서 에너지[氣]가 발생.
⇒ 휴지가 세차게 흔들림.
- 긴장음 : 성문 아래에서 응축된 날숨이 후두 근육의 긴장으로 말미암아 약간 열리면서 빠져 나옴.
⇒ 날숨이 전체적으로 통제되기 때문에 휴지가 거의 흔들리지 않음.
- 비음 : 연구개가 내려와 있어 날숨이 비강으로 빠져 나가며 매우 약화됨.
⇒ 휴지가 흔들리지 않음.

- 예시 : 설음(舌音; 치조음, 설단음)

① 발음 특성 : 설단이 치조를 막았다가 파열되거나 날숨이 비강으로 나오면서 나는 소리.



<그림 8> 치조음 'ㄷ, ㅌ, ㄸ'



<그림 9> 치조음 'ㄹ'



<그림 10> 舌音

② 제자 원리

⇒ 설단이 치조에 닿는 모양을 상형하여 'ㄴ'을 만듦.

⇒ 같은 위치에서 소리의 강도를 달리하여 나는 발음은 획을 더해 글자를 만듦. → 'ㄷ', 'ㅌ'

⇒ 긴장음은 접촉 단면적에 따라 'ㄷ'을 竝書하여 'ㄸ'으로 만듦.

<자음 교육>

- 자음자는 단지 기본자에 단지 획을 더하고, 기본자를 나란히 쓴 차이만 있으므로 기억에 편리함.
- 기본자만 알면 나머지는 같은 위치에서 조음되므로 그 방식만 확인시키면 아주 쉽게 발음 산출 가능.

- 모음자와 모음의 발음 교육

- 모음의 음가를 결정하는 요소

- ① 입의 모양 : 원순과 평순의 구별
- ② 혀의 전후 위치 : 전설모음과 중설, 후설모음의 구별
- ③ 개구도(開口度) : 고모음과 중모음, 저모음의 구별 등

- 모음 교육의 주안점

- ① 정확한 입 모양 만들기
- ② 혀의 위치를 정확하게 인식하여 혀를 작동하기
- ③ 각 모음에 맞는 개구도 확보하기

- 순서와 방법

- ① 기본자-초출자-재출자의 순서로 글자가 표상하는 음을 인식시킨다.(제자 원리 설명)
- ② 초출자 : 기본자가 결합하여 4개의 초출자를 만듦.
⇒ 사람의 오른쪽에서 해가 떠서 사람의 왼쪽으로 해가 진다.(ㅏ와 ㅓ)
⇒ 땅 위로 해가 솟아오르고, 땅 밑으로 해가 진다.(ㅗ와 ㅜ)
: 이를 통해 양성 모음과 음성 모음의 구별을 이해하도록 한다.

③ 결합 모음자 : 'ㅏ'와 'ㅓ'의 경우 - 모음도 활용

⇒ ㅏ : ㅓ와 ㅣ가 결합하여 모음도 상의 중간 지점에서 소리가 난다.

⇒ ㅓ : ㅓ와 ㅣ가 결합하여 모음도 상의 중간 지점에서 소리가 난다.

④ 재출자 : ㅣ가 선행하는 소리임을 인식시킨다.

· 모음의 구별 요소

① 입 모양 : 원순모음과 평순모음의 구별

⇒ 발음 시에 입 모양은 원순모음, 평순모음을 구별하는 척도가 됨.

⇒ 특히, 일본인 학습자의 경우, 'ㅜ'와 'ㅡ'가 명확히 구별되지 않음.

← 일본어의 'ㅜ'가 상대적으로 원순성이 적기 때문. 이를 정확히 인식시킬 필요가 있음.

<방법> 1. 사진 자료 활용 / 수업 중 교사의 實演 및 연습 : 정확한 입 모양 확인.

2. 거울 보고 연습하기

② 혀의 전후 위치 : 전설모음과 중설모음, 후설모음의 구별

⇒ 전설-중설-후설모음의 대립 관계를 결정하는 요소.

⇒ 입의 벌어짐 정도와 혀의 위치를 정확히 인식시킬 필요가 있음.

<방법> 1. 조음 기관 해부도 활용 : 혀의 정확한 위치 확인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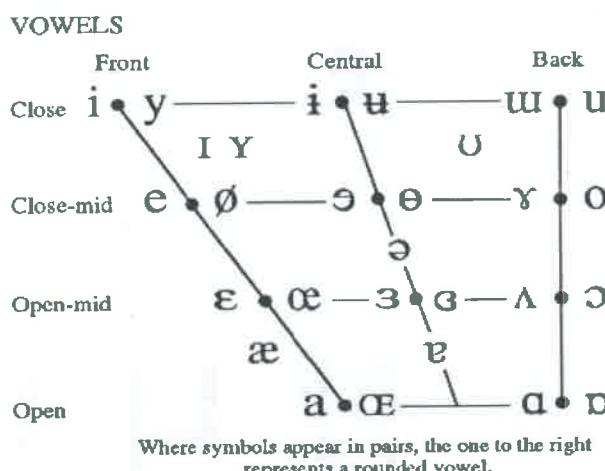
2. 모음도 활용 : 해부도를 활용한 후, 이를 모음도 상에 구현, 각 모음의 음가 대립을 보여줌.

3. 연필 활용 : 연필을 입에 물고 발음을 하며 하여 연필과 혀의 접촉 정도를 실제로 느끼게 함.

③ 개구도 : 혀의 전후 위치상의 동일 위치에서의 고모음-중모음-저모음의 구별

⇒ 'ㅏ'와 'ㅓ', 'ㅗ'와 'ㅜ', 'ㅡ'와 'ㅓ'의 구별.

⇒ 계열별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도록 약간의 과장을 하는 것도 고려.



<그림 11> 국제 음성 부호(IPA)의 기본 모음

- 글자 이름 학습의 필요성

· '기역~허옹'까지의 자모 명칭을 가르칠 것인가의 문제.

① 자모 명칭의 유래 : 최세진의 『훈몽자회(訓蒙字會)』에서 처음 보임.

② 이는 자모의 음가를 설명하기 위한 것.

· 음절의 구성 요소 등을 설명해야 할 경우 등이 있으므로 명칭을 가르칠 필요가 있음.

· 초성의 발음과 종성의 발음을 교육할 때 활용이 가능함.

- 자음 명칭의 구성

- 모두 2음절로 구성.
- 각 음절은 그 위치에서 해당 자음의 음가를 예시한 것임.
- 제1음절은 자음과 'ㅣ'가 결합한 것.
- 제2음절은 모음 'ㅡ' 아래에 자음을 배열한 것. (ㄱ, ㄷ, ㅅ 제외)

- 모음의 명칭

- 그 자체가 바로 발음임.
- 모음부터 가르쳐야 발음 교육을 할 수 있음. ← 음절 단위의 구체적 음성으로 실현되기 때문.

강의를 마치며 · · · · ·

한국어와 한국문화의 세계화를 위하여,
재외동포의 후속 세대 교육을 위하여,
한민족의 정체성 확보를 위하여,

**자신을 희생하며,
보람으로 기꺼이 헌신하시는
한인학교 선생님 여러분을
진심으로 존경합니다.**

감사합니다!!!